

잃어버린 동화를 찾다

장 미 숙

“참 좋은 곳에 사네. 집에서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다니... 부럽다 부러워.” 이사한 뒤 처음으로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는 베란다에 서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겨우 물줄기만 보이는 걸.” 내 말에 친구는 “애가 뭘 모르네. 서울에서 물줄기를 바라보며 살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한강변 부자동네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임대아파트에서도 하천 물줄기를 볼 수 있다는 건 복 받은 거야.” 열을 올리는 친구 말에 나는 웃고 말했다. 사실 친구 말이 아니라도 나 또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천을 바라보며 살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단지 친구에게 생색을 내지 않은 것뿐이었다.

이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 가장 맘에 들었던 건 아파트 옆으로 장지천이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는 한창 복원공사중이어서 맑은 물을 볼 수가 없었으나 공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마음이 설렘다. 그렇게 일년 반 정도를 기다린 결과 몇 개월 전 하천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 모습이 보고 싶어 나는 매일 창가에 붙어살았다. 맑은 물과 주위에 피어난 갖가지 야생화, 그리고 키 큰 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잃어버린 동화를 찾은 것처럼 가슴 한쪽이 흡족해졌기 때문이다. 회색으로 덮인 도시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메말라버린 몸과 마음이 다시 촉촉한 기운을 얻었다고나 할까. 그렇게 장지천은 내게 어린시절의 꿈과 희망, 그리운 사람들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돌려준 고마운 곳이 되었다. 장지천은 복원 전까지 생활하수가 흘러 악취로 뒤덮여 있던 곳이었다. 그런 천을 인공으로 되살려놓아 아직 완벽한 모습을 갖추진 못했지만 나날이 천이 푸르러지는걸 보면 머지않아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집에서는 하천의 지느러미밖에 볼 수가 없어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싶은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자전거를 끌고 장지천을 찾는다. 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건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다. 세상에는 현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물소리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의 소리만큼 사람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건 없기 때문이다. 빗소리가 그렇고, 파도소리가 그렇고, 새소리가 그렇고 돌 틈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 또한 그렇다. 잔잔하지만 부드럽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장단과 리듬을 갖고 있는 물소리는 복잡한 마음을 다스려주고 생각을 깊게 해주는 좋은

소리다.

어린시절을 산골에서 보낸 탓인지 물소리는 내게 무척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징검다리 옆 널찍한 돌 위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느덧 세월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단발머리 소녀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다슬기잡고 물장구치던 냇가와 목직한 징검다리에서 신발을 뚱뚱 띄우고 놀던 하천이 있던 내 고향 산골의 모습이 풍경처럼 떠오른다.

마을 뒤에 높은 산이 있어 산골짜기에서부터 발원한 내는 마을을 감싸 안고 흘러내렸는데 작지도 크지도 않는 그곳이 아이들에게는 천혜의 놀이터였다. 어른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옷을 죄다 버리며 놀았다. 냇물은 바위 뒤에 붙어 있는 다슬기까지 흰하게 보일만큼 맑고 풍부했다. 엄마들은 냇가에서 방망이 소리에 맞춰 엉덩이를 들썩이며 빨래를 했는데 흥이 많았던 대나무집 할매는 빨래를 하다말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대나무집 할매가 두 팔을 허공으로 휘저을 때마다 할매의 앞가슴이 출렁거리며 옷을 비집고 빠져 나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웃다가 뒤로 넘어져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앵두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인 냇물의 마지막 도착지는 저수지였다. 마을 앞에 있던 커다란 저수지는 농수를 공급하는 곳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수영장이 되기도 했다. 냇가에서 충분히 먹을 감지 못한 아이들은 저수지로 몰려들었다. 비료포대기에 바람을 넣어 단단한 줄로 야물게 묶은 다음 두 손으로 붙잡고 헤엄을 쳤다.

장마철이 되면 저수지는 물이 넘쳐나서 옆에 있던 논으로 넘나들기도 했는데 그 바람에 저수지에 살던 고기들이 떼를 지어 논으로 몰려갔다. 텅달아 아이들은 신이 났다. 양동이 하나씩을 들고 논으로 뛰어들어 정신없는 고기들을 맨손으로 잡아 양동이에 담았다. 고기가 팔딱거릴수록 아이들의 입은 귀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날은 집집마다 구수한 냄새로 온 마을이 들썩거렸다.

그 모든 게 물의 힘이었다. 냇가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하천이 있던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할줄 알았고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할줄 알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줄 알았다. 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강을 곁에 두고 하천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온화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내를, 하천을, 강을 잃어버렸다. 냇물은 방치되면서 메마르기 시작했고 하천은 오염으로 죽어갔으며 강은 함부로 개발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다. 생태계가 파괴되자 인간에게 이로운 생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도 피폐해졌다.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다룬 결과 물도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면서 짓는 농사가 결코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더 이상 복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되기 전에 하천과 강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천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에서 다시 물소리를 듣게 될 줄 꿈도 꾸지 못했지만 현실이 된 지금 물이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미쁘기 그지없다. 문명의 이기인 아파트를 옆에 두고 유유히 흐르는 하천이 더 이상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런 풍경이 되어갈 때 하천과 강은 그 뭍을 톡톡히 하리라는 생각이다. 하천과 강은 삭막한 도시의 숨구멍 같은 것이다.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게 살듯이 도시도 숨구멍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더 많은 하천들이 복원되어 답답한 도시의 숨을 환하게 틈워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천은 기능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라나는 어린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강과 하천을 책에서나 보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강과 하천은 이제 책속에서 모두 뛰어나와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어야 한다. 징검다리가 있고 물풀이 자라는 하천에서 아이들은 우렁이도 보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속에 빠져보기도 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물줄기를 돌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도...

요즘 장지천에서는 삼삼오오 짝은 지은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물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식물의 이름을 맞추면서 논다. 그런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해맑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밝게 해준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앞에서 자연을 배워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행복함으로 마음이 그득해지는 것이다. 강과 하천이 힘차게 흐르는 아름다운 농촌과 건강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상상하며 나는 오늘도 장지천의 물줄기에서 살아나는 하천의 생생한 숨소리를 듣는다.